

세계일보

트럼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완전히 끊을 것"

기사입력 2020-09-08 12: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완전히 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과의 경제 고리를 끊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어 우리가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디커플링이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에 일자리를 아웃소싱하는 미국 기업이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을 따지 못하도록 하고,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하면 제조업과 공급망 체인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을 세계 최대 제조업 슈퍼 파워 국가로 만들 것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디커플링이든, 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고율의 관세이든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종식할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중 디커플링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처럼 우리를 뜯어먹은 나라가 어디에도, 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가 준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고 있다"면서 "그들이 우리 돈을 가져가 항공기와 선박, 로켓, 미사일 구축에 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그들의 노리개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바이든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아들이 경험, 두뇌 등 아무것도 없이 중국에서 15억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내가 참혹하게 패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이 대선에서 자신을 떨어

뜨리려고 미국 내 인종 차별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한 고든 창 변호사의 글을 리트윗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2&aid=0003501345>
